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간담회

오늘 목포수산물유통센터서 의견수렴의 장 마련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5개 추진전략 정해



목포시에서는 29일 오후 2시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대강당에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한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사업 추진

계획 및 일정을 소개하고 참여예정 기업·창업자·어업인단체 등 다양한 의견 청취와 참여 희망업체 수요조사 실시하여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20일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공모에 최종 선

정된 사업으로 ‘목포어묵 전통복원, 전국화와 세계화’라는 비전과 목포어묵이라는 차별화 전략으로 국내어묵시장의 틈새시장을 겨냥, 우리시 수산물식품산업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이며 5개 추진전략은 ▲HACCP시설을 갖춘 스마트공장 구축, ▲연육연제품 품질관리 강화, ▲R&BD를 통한 선도기업 육성 및 지원, ▲어업 생산자 및 기

업 등 네트워크 강화, ▲어묵 브랜드화 및 홍보 마케팅 등으로 정하고 50개 중점과제와 단위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시의 3대 전략사업의 하나인 수산물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전라남도 수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그 첫걸음인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 사업 간담회에 기업인과 시민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목포시, 고하도에 국내 유일 ‘목화체험장’ 조성 해상케이블카 연계 관광상품화 기대

목포시 고하도에 국내 유일의 목화 체험장과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되어 10월 27일 개장식을 가졌다. 지난해부터 국내 최장 목포해상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고하도는 19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육지면(목화) 재배가 성공하여 전국 보급이 시작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곳이기도 하다. 시는 고하도의 이러한 역사성을 살려 목화를 테마로 하는 체험관과 대규모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 쉽고 놀이가 동시에 가능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했다. 목화체험장에서는 목화 관련 이야기를 관람 및 체험할 수 있는 목화문화관, 사계절 목화유리온실을 활용한 카페, 푸프탑테라스, 바다전망길, 목화상징조형물이 설치됐다. 이외에는 약 4,000㎡ 규모의 목화 재배지를 운영해 관광객이 직접 목화 성장과정을 볼 수 있게 하고 계절별 테마형 꽃단지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내년부터는 방문객 누구나 만족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인증을 받은 대규모 자연친화형 어린이놀이시설 2개소가 설치되어 가족단위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하도는 ‘도심권 생활정원 및 생활밀착형 숲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에는 국비지원을 통해 그늘목 식재, 정원가구(벤치, 파라솔, 테이블 등)와 정원소품, 워터, 산책로 조성으로 서남권 대표적인 실외정원이 조성되어 그 가치를 높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근처에 위치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금년 내에 개관할 예정으로 해상케이블카와 함께하는 연계 관광코스도 시너지 효과를 내며 고하도는 우리지역의 새로운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고하도 목화체험장이 어린이에게 놀이와 배움이 함께하는 최고의 체험학습장이자 옛 시절 목화를 접해본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특색 있는 공간이 되도록 조성했다”며 “앞으로 이곳에 실외정원이 조성되고 인근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개관하면 고하도는 목포의 중요 관광자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 영암 현장 방문 프로스포츠 관계자 간담회 및 방역상황 직접 점검

영암군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5일 ‘2020 휴먼케어 여자오픈 골프대회’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사우스링스영암CC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양우 장관은 전동평 영암군수, 최형열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 김순미 KPGA 수석부회장, 양덕준 서남해안레저(주)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대회 추진현황, 방역상황, KLPGA 경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후, 대회장을 직접 둘러보며 방역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현장방문 후에는 자리를 옮겨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 전동평 영암군수, 강천원 영암군의회 의장 등 지역의 주요 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하여 문화관광 및 스포츠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 영암군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영

산호 수상복합레저파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에도 흔쾌히 자리에 참석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문화관광·스포츠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그리고 전남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개최된 KLPGA 투어 ‘2020 휴먼케어 여자오픈’은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를 기록한 이소미(21)가 김보아(25)를 1타 차로 제치고 지난해 KLPGA 투어에 데뷔한 이후 40번째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영암=조대호기자

영광군, 청림마인드 향상 위한 청림콘서트 개최

특강·연극공연으로 이해도 높이고 쉽고 친숙하게 진행



영광군은 지난 26일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공직자 청림마인드 향상을 위한 ‘2020년 청림콘서트’를 개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입장 시

교육 참석자들의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수칙을 엄격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공직자의 청림의지를 다지는 청림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다소 무겁고 딱딱할 수 있는 청림교육을 특강과 연극공연으로 구성해 청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조영근 강사를 초청해 ‘청림의식과 절제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청림특강과 청림교육 전문기관인 세종산업교육원을 초청하여 진행된 청림연극 ‘공직자 클래스’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진정한 청림의 클래스에 대해 공감하고, 청림이 공직자의 진정한 가치라는 교육적 메시지를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전달하여 청림 감성지수와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영광=서희권기자

무안군, 군정현안 및 공약사항 점검 보고회 속도감 있는 추진과 공격적·전략적 대응 주문

무안군이 지난 26일 군수 주재로 부군수, 국·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주요 현안사항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그 동안 간부회의와 주요 업무 보고회 등에서 논의되어 온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리로 지역특구 지정, 영산강권 관광인프라 연계 방안,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청년정책 등 16건의 현안과 창포호 에코랜드 조성, 항공개발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등 11건의 민선7기 공약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성과소장의 보고를 받고 점검을 논의했다. 김산 군수는 “지역특구 지정, 인구대책,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청년정책 및 창업 활성화, 기후변화 대비 농수산 관련 대책 수립 등의 현안은 해당 부서에 국한하지 말고 전 실과소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주요 현안 및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문제점에 대한 공격적·전략적 대응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